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0. 14.(수) 12:00
(지 면) 2026. 10. 15.(목) 조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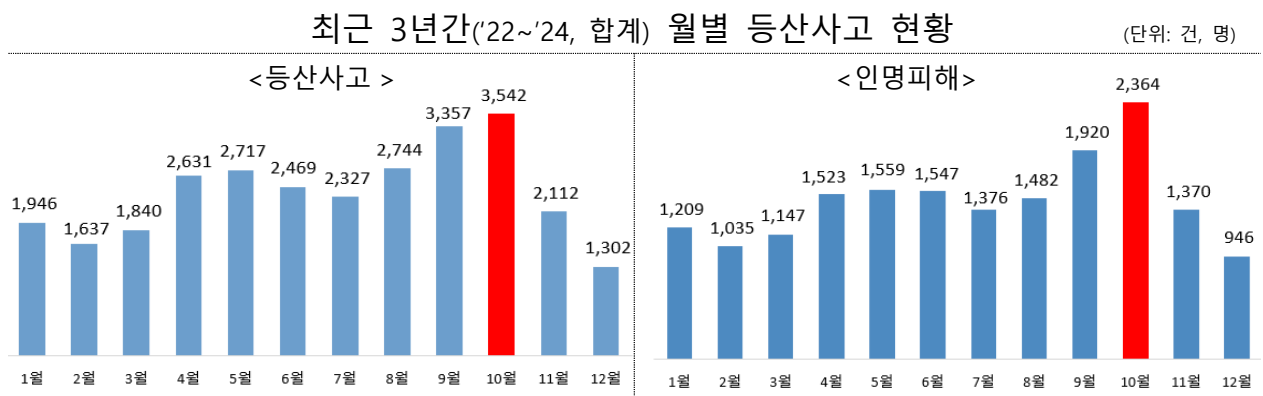
가을 단풍철, 등산사고에 주의하세요!

- 최근 3년간 10월 등산사고 연중 최다, 실족·조난·신체질환 순
- 지정 등산로 이용, 사고 발생 시 산악위치표지판·국가지점번호 활용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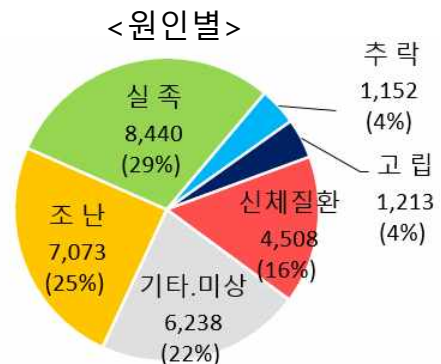
지난달(28일)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은 점차 남쪽으로 퍼져, 10월 하순경 전국적으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발생한 등산사고를 살펴보면 총 28,624건이 발생하였고, 10월 한 달 동안에만 연중 가장 많은 3,542건의 사고가 발생해 2,36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출처: 재난연감, 행정안전부]

같은 기간 전체 등산사고를 원인별로 보면 실족이 8,440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조난 7,073건(25%),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4,508건(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출처: 재난연감, 행정안전부]

가을 단풍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출발 전 일정 확인부터 산행 중 안전수칙 준수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과 대피소의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등산로는 본인의 체력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만약 산행 중 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하산해야 하며, 평소 산행 경험이 적다면 체력 안배에 주의하고 출입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치 확인 및 조난 시 대처 수칙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정 등산로를 벗어나 샅길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일행과 함께하는 동반 산행이 안전하다.

집 근처의 가까운 야산을 가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반드시 행선지를 알려야 한다.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왔던 길을 따라 아는 지점까지 되돌아가고, 사고 발생 시에는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리고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가을철 기후 특성에 맞춘 일몰 시간 및 보온 대비도 필수적이다. 늦가을은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특히 산에서는 해가 일찍 저물어 조난 위험이 커지므로, 산행은 가급적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가 저물기 1~2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요 지역 일몰 예상 시간 >

구 분	양양지역	서울지역	충주지역	정읍지역	성산일출봉
10월 11일	17시 54분	18시 01분	17시 58분	18시 03분	18시 04분
10월 21일	17시 40분	17시 47분	17시 44분	17시 50분	17시 52분
10월 31일	17시 28분	17시 35분	17시 32분	17시 39분	17시 42분

[출처: 천문우주지식정보, 한국천문연구원]

또한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산에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거나 찬 바람이 불 때 덧입을 여벌의 옷과 장갑 등 보온용품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치선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단풍철을 맞아 가을 정취를 만끽하러 산행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데,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가을 단풍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치선 (044-205-4510)
		담당자	사무관	송정호 (044-205-4505)



가을 단풍 즐기기 전 확인하고 등산사고에 주의하세요!

산행준비



- ☑ 등산로와 날씨 정보 확인
- ☑ 비상식량, 구급약품, 여벌옷 등 챙기기
- ☑ 주변에 행선지 알리기

산행 중



산행 전
가벼운 몸풀기는 필수!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아는 곳까지 되돌아 오기



등산로가 아닌 곳은
출입금지!



체력에 맞춰
쉬엄쉬엄 산행하기



사고 시
산악위치표지판을
보고 구조 요청!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
해지기 전에 하산!

참 고

산악위치표지판 제대로 알기

다음 탐방로

산이름

탐방로 번호

국가지점번호

아래쪽 탐방로



지점번호

산 아래부터 500미터
간격 마다 번호 부여

119 등 긴급신고 안내

※ 국가지점번호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안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지점마다 부여한 고유번호로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파악 가능

(표기) 100km 단위는 문자 사용, 그 이하부터는 가로와 세로를 나눈 정수를 연결하여 사용

